캄 보 디 아 에 서 . . .



1. 캄보디아의 2월을 보내며

37 시간의 비행 끝에 다시금 이곳 캄보이아에 돌아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식이 중국을 기점으로 막 시작된 터라 저는 이전에 끊어 놓았던 비행기 표가 중국을 경유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가슴을 쓸어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뉴욕을 거쳐 독일 프랑크푸르트, 싱가폴, 프놈펜 까지의 여정을 지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자 마자 이곳의 생활은 건기의 더위와 먼지, 모기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꿇어야 하는 순간순간의 일들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도시의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집들과 그곳에 삶의 터전을 잡고 여러 물건들을 팔아가며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복잡 다양하게 얽혀 있습니다. 시장을 둘러보며 이런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을 상상해 봅니다.





2.미국 방문

미국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면서, 새소망교회, 비전교회, 워너로빈슨 한인장로교회, 애니스톤 한인 장로교회, 아틀란타 온누리 교회에서 선교 보고 및 선교 헌신예배, 주일예배 등으로 말씀을 전하며 섬겼습니다. 특히 샌디에고의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 주신 위로와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주 파송교회가 없는 저로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선교의 필요성,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의 필요성을 함께 나누며 함께 동역해 주시길 부탁 드릴 수 있었고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이 일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장기간을 이곳 캄보디아에서 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가족들과의 시간과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정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빛진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3. 학교 사역

이곳에 돌아와 PPIIA, 엘드림 학교, ITCS 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신앙 상담 및 학생들과의 만남의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와 직결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ITCS 학교 사역을 내려놓고 이곳 캄보디아에 한국의 합동, 통합, 고신의 장로교단이 연합으로 세운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어서 교수님 면담 및 서류 제출, 심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돌아오니 이곳 학생들의 결혼식에도 초대 받아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4. 시골 마을 교회 지원사역

캄보디아의 시골에는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앞다투어 예배당을 지어주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교회의 사역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거나 사역자들의 헌신의 결여로 예배당은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하고 함께 협력하기로 한 Chertal Light of the Church 는 Phearun Pov 목회자가 아버지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로 교회의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치 않고 교회를 꿋꿋히 지켜가며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매일 저녁 영어와 컴퓨터 교육, 음악 교육을 순서를 정하여 할 뿐 아니라 13세, 15세 18세 청소년들을 모아 축구팀을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마약과 폭력으로부터 떠나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하고 교회에도 전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정기적인 방문과 후원을 통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복음안에 건강히 자라가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두 곳의 시골 마을 교회에서의 개척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프놈펜에서 8시간정도 떨어진 지역이라서 아직 방문을 하지 못했지만 사역자들을 통해서 매주 진행되는 예배와 주중 학습 활동을 사진과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 받으며 서로의 기도제목과 어려움,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받고 있는지 나누고 있습니다.

(Sokan Kin 전도사의 사역지)





(Phally Lin 전도사 교회 어린이들)

특히 팔리 린 전도사의 사역지는 전도사 집의 좁은 부엌 바닥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공부와 주중 공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2일과 3일에 걸쳐서 처음으로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 저에게 아이들 공부를 위해 탁자 5개(한개 25불씩) 의자 30개(한개 5불)의 물품을 사줄 수 있는지 요청이 와서 기도하며 이번 달에 이 물품들을 어떻게 후원하는 것이 지혜로울지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시골 교회의 전도사님들이 선교사를 만나서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 무조건 들어주게 되면 이것이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영적으로나 교회의 미래를 위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당연히 이것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서로 노력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본인들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5. 언어 훈련

저는 오는 4월 첫주부터 이곳 프놈펜 왕립 대학에서 크메어를 배우기 위해 언어과정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곳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 언어에 익숙해 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역들 중에 우선순위로 언어를 배우는 시간을 떼어 놓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4월은 이곳 캄보디아의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가는 계절이라 졸지 않고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는 정신력과 체력이 필요하겠습니다.



7. 짬족 사역

이곳 캄보디아에는 짬족이라는 무슬림 족속이 오래전부터 크메르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전체 인구의 3%-4% 정도이지만 실재로는 좀 더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강경하고 정통적인 무슬림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자기들만의 색채와 문화를 고수하려 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족속입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13년간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시며 저에게 이 사역을 물려받아 계속해서 감당해 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거룩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우선은 지역을 방문하고 그 지역 가운데 있는 유치원 사역, 방과 후 학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선생님을 모집하고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무슬림 사역은 말 그대로 공개적인 전도가 어렵고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쌓는 관계전도를 통해 가능하므로 사실 쉽지도 않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배우고 있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사역에 대해서 알아가고 접근해 가려고 합니다.







8. 기도제목

①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오직 예수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사명자로 바로 설수 있도록..

② 더워지는 캄보디아의 날씨와 모기, 질병 등 모든 상황과 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③ 다음 학기부터 시작되는 언어의 훈련을 잘 받아서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에서의 새로운 교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④ 두고 온 가족들을 주님께서 늘 지켜 주시고 도와 주셔서 건강과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권현정 전도사가 사역과 학업, 직장생활, 엄마로서의 양육의 일들을 건강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⑤ 사역에 필요한 모든 영적, 육체적, 물질적 부분을 공급해 주시고 사역의 지평이 넓어질 수 있도록**(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시골 교회들의 사역을 위해 자동차 구입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자동차(픽업 트럭)를 구입 할 재정일 주실 수 있도록)**

⑥ 새롭게 시작할 무슬림 짬족 사역 특히 유치원과 방과후 학교를 위한 선생님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이 넉넉히 채워질 수 있도록 ... (9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랑의 기도와 정성된 물질의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후원 안내]

미국 예금주 : Sean Ohbyung Kwon
은행명 : Bank of America (미국)
Accout #: 3340 5755 6805
Routing #:061000052
한국 예금주: Sean Ohbyung Kwon
은행명: 하나은행
계좌번호: 552-910091-46007
권오병, 권현정, 권서영, 권서진 선교사가정 드림